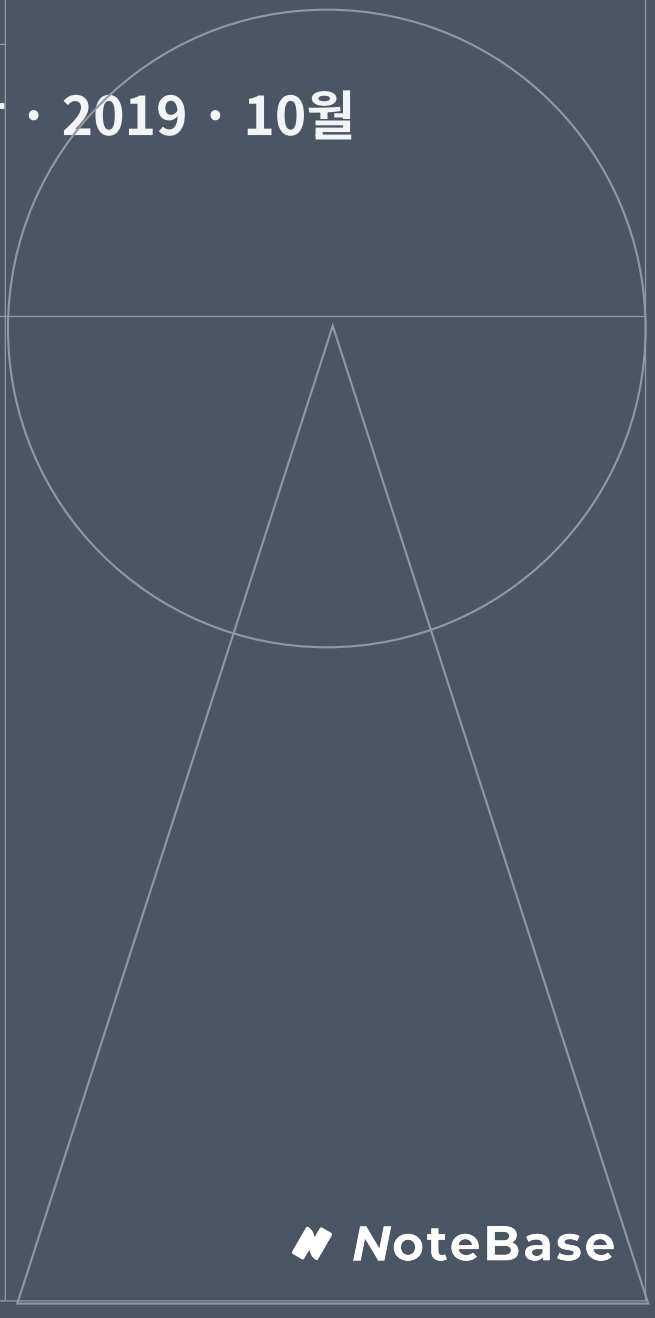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문 1. (주)한국은 공기청정기를 위탁판매방식으로 판매한다. 20X9년 7월 1일에 공기청정기 10대를 대당 ₩5,000에 판매하도록 (주)민국에 발송하였다. 이때 발송비 ₩5,000은 (주)한국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민국은 20X9년 12월 31일까지 8대의 공기청정기를 판매하였다. (주)한국이 20X9년에 인식할 위탁매출 수익은?

① ₩30,000

② ₩35,000

③ ₩40,000

④ ₩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위탁판매에서 위탁매출 수익은 발송수량이 아니라 실제 판매수량 기준으로 인식하고, 발송비는 수익 차감이 아니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공기청정기 10대 발송, 대당 5,000원, 연말까지 8대 판매, 발송비 5,000원
구해야 할 값: 20X9년에 인식할 위탁매출 수익
주의할 조건: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수량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송비는 별도 비용이다.

사용할 공식

위탁매출 수익 = 실제 판매수량 × 대당 판매가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위탁판매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보낸 시점에 수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수량만큼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말까지 실제 판매된 수량은 8대이다.
2. 대당 판매가액은 5,000원이다.
3. 따라서 위탁매출 수익은 $8 \times 5{,}000 = 40{,}000$이다.
4. 발송비 5,000원은 판매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위탁매출 수익은 실제 판매된 8대만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 \times 5{,}000 = 40{,}000$이다.
- 30,000원은 문제의 판매수량과 판매단가를 반영한 수익 계산과 맞지 않는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위탁매출 수익은 40,000원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35,000원은 정답 40,000원에서 발송비 5,000원을 차감한 값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발송비는 위탁매출 수익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 비용이다. 올바르게는 "수익은 40,000원이고 발송비 5,000원은 비용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연말까지 판매된 수량은 8대이고 대당 판매가액은 5,000원이므로 위탁매출 수익은 $8 \times 5{,}000 = 40{,}000$이다.
-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에게 발송한 수량이 아니라 최종 판매된 수량만큼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④ X
- 50,000원은 발송한 10대 전부를 곧바로 매출로 본 값이다.
- 위탁판매에서 미판매 2대는 아직 수익 인식 대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판매된 8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여 40,000원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위탁판매에서는 상품을 보낸 시점과 실제 판매된 시점을 혼동하기 쉽고, 발송비를 매출에서 차감해 순액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은 ②에서 비용과 수익의 구분을, ④에서 발송수량과 판매수량의 구분을 흔들도록 설계된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탁판매 문제는 먼저 실제 판매수량을 확인한 뒤 수익을 판매수량 × 판매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다음 운송비나 수수료가 제시되면 그것이 수익 차감항목인지 별도 비용인지 구분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탁판매 수익은 보낸 수량 기준이 아니라 팔린 수량 기준이며, 발송비는 수익 차감이 아니라 비용이다.

NoteBase

문 2. <보기>의 자료에 따른 20X1년 (주)대한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보기>
• 20X1년의 (주)대한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100,000, ₩150,000이다.
• 20X1년 1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1,000주, 200주이다.
• 20X1년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은 4%이다.
•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각각 ₩500,000, ₩100,000이다.
• 20X1년 1월 1일 (주)대한의 자기주식은 50주이다.
• 20X1년 2월 1일 (주)대한은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발행 중인 보통주에 대하여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 20X1년의 (주)대한의 법인세율은 20%이다.

① 91.9
② 92.9
③ 93.9
④ 94.9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뒤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소급반영하여 기본주당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당기순이익 100,000원, 기초 보통주 1,000주, 기초 우선주 200주, 우선주 배당률 4%, 우선주 자본금 100,000원, 자기주식 50주, 2월 1일 보통주 10% 무상증자.
구해야 할 값: 20X1년 기본주당순이익.
주의할 조건: 기본주당순이익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보통주 귀속순이익을 사용하고,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며, 무상증자는 기초시점부터 소급반영한다. 당기순이익이 이미 주어졌으므로 법인세율 20%와 영업이익 150,000원은 계산에 직접 쓰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실제 유통된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우선주배당금은 $100,000 \times 4\% = 4,000$원이다.
2. 보통주 귀속순이익은 $100,000 - 4,000 = 96,000$원이다.
3.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주식 1,000주에서 자기주식 50주를 뺀 950주이다.
4. 2월 1일의 10% 무상증자는 비교가능성을 위해 기초시점부터 소급반영하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950 \times 1.1 = 1,045$주이다.
5. 따라서 기본주당순이익은 $96,000 \div 1,045 = 91.866\ldots$원이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1.9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선주배당금 4,000원을 차감한 보통주 귀속순이익 96,000원을, 자기주식 차감 후 무상증자를 소급반영한 1,045주로 나누면 91.9가 된다.
② X: 틀린 표현은 '92.9'이다. 계산 결과가 91.9이므로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기주식 50주를 제외하고 무상증자 10%를 소급반영한 1,045주를 분모로 써서 91.9로 계산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93.9'이다. 이 값은 분모를 더 작게 보거나 무상증자 소급반영을 잘못 처리한 경우에 가까운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우선주배당금 차감 후 96,000원을 1,045주로 나누어 91.9가 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94.9'이다. 이 값은 자기주식 제외나 우선주배당금 차감을 빠뜨린 채 근사 계산할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우선주배당금 4,000원을 먼저 빼고 자기주식 50주를 제외한 뒤 무상증자를 소급반영하여 91.9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법인세율 20%와 영업이익 150,000원에 시선이 끌리기 쉽지만, 문제는 이미 당기순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를 다시 세후로 바꾸지 않는다. 또 2월 1일 무상증자를 월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시점부터 소급반영해야 하고, 자기주식 50주는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주당순이익 문제는 보통주 귀속순이익을 먼저 확정하고, 분모에서는 유통보통주식수만 남긴 뒤, 무상증자·주식분할은 반드시 기초시점부터 소급반영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주당순이익은 '우선주배당금 차감,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 소급반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의 표준원가계산자료는 <보기>와 같다. 당기 중의 실제직접노무시간은?

<보기>
실제제품생산량: 10,000개
실제직접노무원가총액: ₩5,000,000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10시간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유리한 차이): ₩720,000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불리한 차이): ₩520,000

① 100,000시간
② 110,000시간
③ 120,000시간
④ 130,000시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노무원가의 임률차이와 능률차이를 이용해 실제직접노무시간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실제제품생산량 10,000개,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10시간, 실제직접노무원가총액 5,000,000원,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유리 720,000원,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불리 5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실제직접노무시간이다.
주의할 조건은 임률차이는 유리, 능률차이는 불리이므로 차이 방향을 반대로 읽지 않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표준허용시간은 SH = 실제생산량 × 단위당 표준시간 이다.
직접노무 임률차이는 $AH \times (SR - AR)$ 이고, 유리차이 720,000원이므로 $AH \times SR = AH \times AR + 720,000$ 이다.
직접노무 능률차이는 $SR \times (AH - SH)$ 이고, 불리차이 520,000원이므로 $SR \times (AH - SH) = 520,000$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실제원가총액과 두 가지 직접노무 차이를 함께 주었으므로 실제시간 AH와 표준임률 SR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표준허용시간을 구하면 SH = 10,000 × 10 = 100,000시간 이다.
2. 실제직접노무원가총액은 AH × AR = 5,000,000원 이다. 임률차이가 유리 720,000원이므로 AH × SR = 5,000,000원 + 720,000원 = 5,720,000원 이다.
3. 능률차이가 불리 520,000원이므로 $SR \times (AH - 100,000) = 520,000$ 이다.
4. 2식에서 $SR = \frac{5,720,000}{AH}$ 이므로 이를 3식에 대입하면 $\frac{5,720,000}{AH}(AH - 100,000) = 520,000$ 이다.
5. 정리하면 $5,720,000(AH - 100,000) = 520,000AH$ 이고, $5,200,000AH = 572,000,000,000$ 이므로 AH = 110,000시간 이다.

선지 판단

1번 X: 100,000시간은 표준허용시간일 뿐 실제직접노무시간이 아니다. 이 값을 넣으면 능률차이는 $SR \times (100,000 - 100,000) = 0$ 이 되어 불리차이 520,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00,000시간'이고 올바르게는 '110,000시간'이다.
2번 O: 계산 결과 실제직접노무시간은 110,000시간이다. 이 값을 넣으면 SR = (5,720,000)/(110,000) = 52원 이고, 능률차이는 52 × (110,000 - 100,000) = 520,000원 으로 불리차이와 일치한다.
3번 X: 120,000시간을 넣으면 능률차이는 52 × (120,000 - 100,000) = 1,040,000원 이 되어 제시된 520,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20,000시간'이고 올바르게는 '110,000시간'이다.
4번 X: 130,000시간을 넣으면 능률차이는 52 × (130,000 - 100,000) = 1,560,000원 이 되어 제시된 520,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30,000시간'이고 올바르게는 '110,000시간'이다.

오답 포인트

임률차이의 유리·불리 방향을 반대로 읽거나, 표준허용시간 100,000시간을 곧바로 실제시간으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실제원가총액에 유리한 임률차이를 더해 $AH \times SR$를 먼저 만드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노무 차이 문항은 먼저 표준허용시간을 구하고, 다음에 실제원가총액과 임률차이로 $AH \times SR$를 만든 뒤, 마지막에 능률차이식에 대입해 실제시간을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노무 차이는 표준허용시간 계산 후, 임률차이로 $AH \times SR$를 만들고 능률차이로 시간을 푼다.

NoteBase

문 4. 기타포괄손익 중 재분류조정이 가능한 것은?

①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분류조정은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후속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평가손익이 우선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되었다가 처분·손상 등의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반면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재평가로 생긴 기타포괄손익 누계이다.
틀린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실제로는 자산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필요하면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된다.

② X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등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항목이다.
틀린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실제로는 후속 기간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③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틀린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실제로는 처분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자본 내에서만 이동한다.

④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되지만 후속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재분류조정이 가능한 것은 ④이다.

오답 포인트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간다는 공통점만 보고 모두 재분류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③의 지분상품과 ④의 채무상품을 일부러 나란히 두어 재순환 여부 차이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보면 먼저 당기손익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인지부터 구분한다. 채무상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은 재분류 가능이고, 재평가잉여금·확정급여 재측정요소·지분상품 지정 FVOCI는 재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채무상품 FVOCI는 재순환, 재평가잉여금·연금재측정·지분상품 지정 FVOCI는 비재순환이다.

NoteBase

문 5. 20X9년 7월 1일에 화재로 인하여 (주)한국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의 30%가 소실되었다. 20X9년 1월 1일부터 20X9년 7월 1일까지 발생한 관련 회계기록은 <보기>와 같다. 화재로 인한 (주)한국의 재고자산 손실액은?

<보기>
• 20X9년 기초 재고자산 ₩1,500
• 20X9년 7월 1일까지의 매입액 ₩700
• 20X9년 7월 1일까지의 매출액 ₩2,000
• 매출총이익률 20%

① ₩160
② ₩180
③ ₩200
④ ₩2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한 매출총이익법으로 화재 시점의 재고자산을 추정한 뒤, 소실 비율 30%를 적용해 손실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 재고자산 1,500원
- 7월 1일까지의 매입액 700원
- 7월 1일까지의 매출액 2,000원
- 매출총이익률 20%
- 화재로 재고자산의 30% 소실

구해야 할 값:
-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액

주의할 조건:
- 매출총이익률 20%는 매출액 기준이므로 매출원가율은 80%이다.
- 7월 1일 현재 추정 재고 전체가 아니라 그중 30%만 손실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COGS = Sales \times (1 - GP\ rate)$

$EI = BI + Purchases - COGS$

$Loss = EI \times 3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화재 시점에는 실지재고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총이익법으로 7월 1일 현재 재고를 먼저 추정한 뒤 소실 비율을 곱해 손실액을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총판매가능재고는 1,500원 + 700원 = 2,200원이다.
2.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80%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2{,}000 \times 0.8 = 1{,}600$원이다.
3. 7월 1일 현재 추정 재고자산은 $2{,}200 - 1{,}600 = 600$원이다.
4. 이 중 30%가 소실되었으므로 화재손실액은 $600 \times 0.3 = 18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손실액은 160원이다"는 틀린 표현이다. 160원은 매출총이익률 20%를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잘못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를 1,600원으로 계산한 뒤 추정 재고 600원의 30%를 적용하므로 손실액은 180원이다.

② O
- 매출원가 1,600원, 추정 재고 600원, 소실액 180원으로 계산되므로 옳다.

③ X
- "손실액은 200원이다"는 틀린 표현이다. 이는 매출액 2,000원을 그대로 원가처럼 다루거나 소실 비율 30% 적용 단계를 빠뜨릴 때 생기는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매출총이익률을 반영해 추정 재고를 600원으로 구한 뒤 그 30%인 180원을 손실액으로 본다.

④ X
- "손실액은 220원이다"는 틀린 표현이다. 화재손실액은 총판매가능재고 2,200원에서 바로 구하는 값이 아니라, 7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추정 재고 600원에 소실 비율을 적용해 구하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손실액은 180원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총이익률 20%를 매출원가율 20%로 혼동하거나, 추정 재고를 구한 뒤 다시 30%만 손실이라는 조건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매출총이익법으로 재고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는 점과 소실 비율을 마지막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재손실 계산 문제는 총판매가능재고 산정,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 추정, 기말재고 추정, 소실 비율 적용의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비율이 매출 기준인지 원가 기준인지부터 먼저 구분하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매출총이익법은 총판매가능재고에서 추정 매출원가를 빼서 재고를 구하고, 사고손실은 그 추정 재고에 소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은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 생산활동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다.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진척정도에 따라 투입되는 것으로 할 때,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200이면 기말 재공품의 완성도는?

<보기>
기초 재공품: 없음
당기 착수량: 1,600단위
당기 투입원가: ₩240,000
당기 완성품 수량: 800단위

① 30%
② 40%
③ 50%
④ 6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환산량과 단위당 원가를 이용해 기말 재공품의 완성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재공품은 없다.
당기 착수량은 1,600단위이다.
당기 투입원가는 240,000원이다.
당기 완성품 수량은 800단위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다.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진척도에 따라 투입된다.

사용할 공식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총 제조원가 / 총 완성품환산량이다.
따라서 총 완성품환산량 = 총 제조원가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이다.
이 문제는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가 주어졌으므로 먼저 총 완성품환산량을 구한 뒤, 완성품 800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말 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으로 보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 완성품환산량은 240,000원 / 200원 = 1,200환산단위이다.
2. 당기 완성품은 800단위이므로 완성품환산량도 800환산단위이다.
3. 기말 재공품 수량은 1,600단위 - 800단위 = 800단위이다.
4. 기말 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은 1,200환산단위 - 800환산단위 = 400환산단위이다.
5. 기말 재공품 완성도는 400 / 800 = 50%이다.

선지 판단

1번: X. 기말 재공품 완성도는 30%가 아니다. 계산 결과 기말 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은 400환산단위이므로 완성도는 50%가 된다.
2번: X. 기말 재공품 완성도는 40%가 아니다. 40%라면 기말 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이 320환산단위가 되어 총 완성품환산량 1,200환산단위와 맞지 않는다.
3번: O. 총 완성품환산량 1,200환산단위에서 완성품 800환산단위를 차감하면 기말 재공품은 400환산단위이고, 이를 실제 재공품 800단위로 나누면 50%이다.
4번: X. 기말 재공품 완성도는 60%가 아니다. 60%라면 기말 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이 480환산단위가 되어 단위당 원가 200원과 총원가 240,000원 조건에 맞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주어지면 먼저 총 완성품환산량을 역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재공품 실제수량 800단위를 바로 완성도로 보거나, 완성품 800단위를 차감하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합원가 계산형은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로 총 완성품환산량을 먼저 구한 뒤, 완성품 환산단위를 차감하여 기말 재공품 환산단위를 구하고 마지막에 실제 재공품 수량으로 나누어 완성도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말 재공품 완성도 = 기말 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말 재공품 실제수량이다.

NoteBase

문 7.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②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하다.

③ 기업은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수익과 비용의 특별손익 항목은 주석에 표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원칙 중 유동·비유동 구분, 발생기준의 적용범위, 특별손익 표시금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비유동 구분: 재무상태표는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한다.
유동성 순서 표시: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발생기준: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기준으로 작성하지만 현금흐름표는 예외이다.
특별손익: 수익과 비용의 특별손익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 어디에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무상태표는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하다'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추가 공시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올바른 회계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모든 재무제표'이다. 발생기준은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에 적용되므로, 올바르게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발생기준으로 작성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특별손익 항목은 주석에 표시한다'이다. 특별손익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뿐 아니라 주석에도 별도 표시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수익과 비용은 특별손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발생기준 원칙만 기억하고 현금흐름표 예외를 놓치기 쉽다. ④는 예전 회계관행의 '특별손익' 표현을 떠올리면 속기 쉬우며, 현재 기준은 그 항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문제는 먼저 원칙과 예외를 나눈다. 재무상태표는 유동·비유동 구분이 원칙이고, 발생기준은 현금흐름표가 예외이며, 특별손익은 표시 자체가 금지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재무상태표는 유동·비유동이 원칙, 발생기준은 현금흐름표 제외, 특별손익은 표시금지이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서 있던 토지를 구입하고 즉시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다. 관련 자료가 <보기>와 같을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보기>
- 토지 구입가격 ₩1,000,000
- 토지 취득세 ₩100,000
-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100,000
- 신축공장 건축허가비용 ₩20,000
- 신축공장건물 설계비용 ₩50,000
- 기존건물 철거비용 ₩100,000
- 기존건물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50,000
- 토지의 구획정리비용 ₩400,000
- 신축건물공사원가 ₩800,000

① ₩1,450,000

② ₩1,550,000

③ ₩1,650,000

④ ₩1,7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관련 지출을 구분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토지 구입가격 1,000,000원, 취득세 100,000원,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100,000원, 기존건물 철거비 100,000원, 폐자재 처분수입 50,000원, 토지 구획정리비용 4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토지의 취득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기존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신축공장을 세울 목적이므로 기존건물 순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되고, 신축공장 건축허가비용·설계비용·공사원가는 건물 원가로 본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토지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취득세 + 취득관련 부대비용 + 즉시 철거 목적 기존건물의 순철거비 + 토지의 구획정리비용이다.
순철거비 = 철거비용 - 폐자재 처분수입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필요한 지출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존건물 순철거비를 계산하면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이다.
2. 토지 취득원가를 합산하면 1,0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400,000원이다.
3.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는 1,65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450,000원은 취득세 100,000원과 중개수수료 100,000원 같은 취득부대비용을 누락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토지 취득원가에는 두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틀린 표현은 '1,45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650,000원'이다.
② X: 1,550,000원은 기존건물 철거비 100,000원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폐자재 처분수입 50,000원만 차감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즉시 철거 목적이므로 순철거비 50,000원을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 하므로 틀린 표현은 '1,55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650,000원'이다.
③ O: 1,650,000원은 구입가격 1,000,000원 + 취득세 100,000원 + 중개수수료 100,000원 + 순철거비 50,000원 + 구획정리비용 400,000원을 정확히 합산한 금액이다. 신축공장 건축허가비용, 설계비용, 공사원가는 건물 원가이므로 제외하는 판단도 맞다.
④ X: 1,750,000원은 철거비 100,000원과 폐자재 처분수입 50,000원을 상계하지 않고 둘 다 원가에 가산하는 식의 잘못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폐자재 처분수입은 철거 관련 원가를 줄이는 항목이므로 틀린 표현은 '1,750,000원'이고, 올바르게는 '1,6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토지 관련 지출과 신축건물 관련 지출을 섞는 데 있다. 특히 '즉시 철거 목적 기존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으로 보아 순철거비를 토지 원가에 넣어야 하고, 폐자재 처분수입은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취득원가 문제는 먼저 자산 대상을 토지와 건물로 나눈 뒤, 해당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직접지출만 포함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기존건물을 사자마자 철거하는 경우에는 순철거비를 토지 원가로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즉시 철거 목적 기존건물은 토지 원가, 신축 관련 허가·설계·공사비는 건물 원가이다.

NoteBase

문 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된다.

②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와 표시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재정상태표가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유동성 배열 및 미결산항목 표시원칙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이다.
비망계정 = 재산 상태를 보조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계정으로서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 계정이다.

핵심 구분

재정상태표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기업회계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 구성요소는 순자산이다.
또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지급금·가수금 같은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를 잘못 적은 선지이다. 규칙상 재정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틀린 표현: 자산·부채 및 자본
- 올바른 표현: 자산·부채 및 순자산

② O
- 부채를 현재의 의무로 보고, 그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③ O
- 재정상태표 작성기준상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④ O
- 가지급금·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업회계의 '자본' 개념을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순자산'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출제자는 구성요소 명칭 하나만 바꾸어 놓고 나머지 선지들은 규칙 문구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상태표 문제는 먼저 구성요소 명칭부터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순자산인지 본 뒤, 배열기준은 유동성, 미결산항목은 적절한 과목 표시, 비망계정은 자산·부채 미표시라는 세 가지를 차례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재정상태표는 자산·부채·순자산이고, 자본이 아니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X8년 1월 1일에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였다.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한다. 20X9년 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보기>와 같고, <보기>의 거래가 반영된 20X9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430,000이다. 이 경우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보기>

차)	이자비용	60,0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
				현금	30,000

① 14%

② 15%

③ 16%

④ 1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율법에서 기초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의 관계를 이용해 유효이자율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20X9년 말 이자 관련 분개: 차) 이자비용 60,000 /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 현금 30,000
- 20X9년 말 사채 장부금액: 430,000원

구해야 할 값:
- 사채의 유효이자율

주의할 조건:
- 할인발행사채이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기말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유효이자율법에서는 당기 이자비용이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할인발행차금 상각액만큼 사채 장부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9년 말 장부금액 430,000원에는 당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20X9년 초 장부금액은 400,000원이다.
2. 유효이자비용은 60,000원이므로 $60,000 = 400,000 \times r$이다.
3. 따라서 $r = 60,000/400,000 = 0.15$이므로 유효이자율은 15%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4%라면 20X9년 초 장부금액이 60,000 / 0.14 ≈ 428,571원이어야 하므로 실제 기초 장부금액 400,000원과 맞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유효이자율이 14%'이고, 올바르게는 15%이다.

② O
- 20X9년 초 장부금액 400,000원에 15%를 곱하면 이자비용이 60,000원이 되어 제시된 분개와 정확히 일치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0원을 더하면 기말 장부금액도 430,000원이 되어 조건과 일치한다.

③ X
- 16%라면 20X9년 초 장부금액이 60,000 / 0.16 = 375,000원이어야 하므로 실제 기초 장부금액 400,000원과 다르다.
- 틀린 표현은 '유효이자율이 16%'이고, 올바르게는 15%이다.

④ X
- 17%라면 20X9년 초 장부금액이 60,000 / 0.17 ≈ 352,941원이어야 하므로 실제 기초 장부금액 400,000원과 맞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유효이자율이 17%'이고, 올바르게는 15%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 장부금액 430,000원을 바로 분모로 쓰거나, 현금이자 30,000원을 유효이자비용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먼저 상각액 30,000원을 거꾸로 빼서 기초 장부금액 400,000원을 구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효이자율 문제는 기말 장부금액에서 당기 상각액을 빼거나 더해 기초 장부금액을 먼저 복원한 뒤, 이자비용을 그 기초 장부금액으로 나누어 유효이자율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고, 할인사채는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20X9년 1월 1일 건물 수선을 위해 ₩4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상각률은 0.3이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오류가 20X9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과소 계상 ₩24,000

② 과소 계상 ₩28,000

③ 과대 계상 ₩24,000

④ 과대 계상 ₩2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과소 또는 과대 계산되는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건물 수선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40,000이다.
구해야 할 값: 잘못된 회계처리가 20X9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다.
주의할 조건: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건물에 가산해야 하고, 정액법 상각률 0.3을 적용하면 당기에는 추가 감가상각비만 비용이 된다.

사용할 공식

추가 감가상각비는 자본적 지출액 × 상각률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자본적 지출은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뒤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실제로는 자본적 지출 ₩40,000을 건물에 가산해야 한다.
2. 따라서 당기에 비용으로 남아야 할 금액은 전액 ₩40,000이 아니라 추가 감가상각비뿐이다.
3. 추가 감가상각비는 $40,000 \times 0.3 = 12,000$이므로 ₩12,000이다.
4. 그런데 회사는 ₩40,000 전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므로 비용을 $40,000 - 12,000 = 28,000$만큼 많이 계상했다.
5. 비용이 ₩28,000 과대 계상되었으므로 당기순이익은 ₩28,000 과소 계산되었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과소 계산 ₩24,000'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비용 과대 계상액이 ₩28,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산 ₩28,000'이다.
2번 O: 자본적 지출을 즉시 비용 처리하면 올바른 비용인 추가 감가상각비 ₩12,000 대신 ₩40,000을 비용 처리한 셈이므로 당기순이익은 ₩28,000 과소 계산된다.
3번 X: '과대 계산 ₩24,000'이 틀렸다. 방향부터 반대이며, 이 오류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어서 이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인다. 올바르게는 '과소 계산 ₩28,000'이다.
4번 X: '과대 계산 ₩28,000'이 틀렸다. 금액 ₩28,000은 맞지만 방향이 틀렸다. 비용 과대 계상은 당기순이익 과대가 아니라 당기순이익 과소를 만든다.

오답 포인트

자본적 지출이면 전액을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은 떠올리면서도, 당기에는 감가상각비 ₩12,000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빼먹기 쉽다. 그러면 ₩40,000을 그대로 효과로 보거나 방향만 반대로 판단하는 실수가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오류 문제는 먼저 '올바른 처리 시 당기비용이 얼마인가'를 구한 뒤, '실제 기록된 비용'과 비교해 차이를 계산하면 된다. 실제 기록된 비용이 더 크면 이익 과소, 더 작으면 이익 과대이다.

암기 포인트

자본적 지출 오분류의 이익효과는 전액이 아니라 '잘못 비용 처리한 금액 - 당기 감가상각비'의 순효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2.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총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②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 자본금이 증가한다.

③ 주식병합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지만 주식분할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④ 주식분할의 경우 주당 액면금액이 감소하지만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주당 액면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총자본, 자본금, 발행주식수, 주당 액면금액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주식을 나누는 방식이므로 총자본은 변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증가한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주는 방식이므로 총자본은 변하지 않고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는 증가한다.
주식분할은 액면금액을 더 잘게 나누어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이므로 자본금과 총자본은 변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는 증가하며 주당 액면금액은 감소한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이므로 자본금과 총자본은 변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며 주당 액면금액은 증가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모두 자본 내부의 대체거래이므로 회사에 새로운 자산이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총자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② X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분할은 자본금을 늘리는 거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주식분할의 경우 자본금이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주식분할의 경우 자본금은 변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증가한다"이다.

③ O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치는 효과이므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한다. 반대로 주식분할은 한 주를 여러 주로 나누므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④ O
주식분할은 액면금액을 쪼개는 방식이므로 주당 액면금액이 감소한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액면금액 자체를 바꾸지 않고 주식 수만 늘리는 방식이므로 주당 액면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무상증자와 주식분할은 모두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같은 효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식분할은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회사에 새로운 자금 유입이 있는지 본다. 그다음 자본 내부 대체인지, 액면금액만 쪼개는지, 여러 주를 합치는지로 나누면 총자본, 자본금, 발행주식수, 주당 액면금액의 변화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상증자는 자본금 증가, 주식분할은 주식 수 증가이지만 자본금 불변, 주식병합은 그 반대 방향이다.

NoteBase

문 13. (주)서울은 20X1년 초에 (주)한국의 주식을 거래원가 ₩10,000을 포함하여 ₩510,000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530,000과 ₩480,000이고, 20X3년에 ₩490,000에 처분하였을 때, 주식 처분으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손익 영향 없음

② ₩8,000 이익

③ ₩10,000 이익

④ ₩12,000 이익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시점 장부금액과 매각대금의 차이로 계산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총 취득지출 510,000원(거래원가 10,000원 포함), 20X2년 말 공정가치 480,000원, 20X3년 매각대금 490,000원
구해야 할 값: 20X3년 처분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주의할 조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거래원가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매기말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사용할 공식

처분손익 = 매각대금 - 처분시점 장부금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직전 장부금액이 이미 최신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처분 시점에는 매각대금과 그 장부금액의 차이만 추가 손익이 된다.

계산 과정

1. 거래원가 10,000원은 취득 시점에 이미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20X3년 처분손익 계산에 다시 넣지 않는다.
2. 20X2년 말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480,000원이다.
3. 20X3년 처분손익은 490,000원 - 480,000원 = 10,000원 이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손익 영향 없음'이 틀린 표현이다. 20X3년 처분 시 매각대금 490,000원이 장부금액 480,000원보다 10,000원 크므로 올바르게는 '10,000원 이익'이다.
② X: '8,000 이익'이 틀린 표현이다. 처분손익은 처분 직전 장부금액 48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올바르게는 '10,000원 이익'이다.
③ O: 20X2년 말 공정가치 480,000원이 처분 직전 장부금액이고, 이를 490,000원에 팔았으므로 10,000원 이익이 발생한다.
④ X: '12,000 이익'이 틀린 표현이다. 거래원가나 과거 공정가치 변동을 처분 시점에 다시 가감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10,000원 이익'이다.

오답 포인트

취득 시 거래원가 10,000원을 처분손익 계산에 다시 넣거나, 최초 취득금액 510,000원을 계속 기준으로 잡으면 오답이 된다. 이 자산은 매기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으로 갱신되므로 처분 시점에는 직전 장부금액 480,000원만 보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직전 결산일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매각대금과의 차이만 처분손익으로 계산하면 된다. 거래원가와 이전 연도의 평가손익이 이미 어디에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매각대금 - 직전 공정가치 장부금액'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주)대한의 20X1년 말 결산 절차 중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주)대한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할 충당부채 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보기>
1. 20X1년 중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수리비용은 총 ₩2,000,000이 예상되며, 향후 2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X1년 중 (주)민국의 은행차입 ₩4,0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주)민국이 부도처리되었다. (주)민국은 은행차입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금액 지급의 일차적 책임은 (주)대한에게 있다.
3. (주)대한은 20X1년 말 해상구조물을 현금 ₩3,000,000에 구입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 구조물의 추정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에는 훼손된 환경을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000,000이며, 현재가치는 ₩500,000이다.

① ₩9,500,000
② ₩7,000,000
③ ₩6,500,000
④ ₩6,0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당부채의 인식 대상과 측정 금액을 구분하여 기말 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제품보증수리비용 예상액 2,000,000원
- 지급보증으로 대신 부담할 금액 4,000,000원
- 복구의무 관련 미래지출액 1,000,000원, 현재가치 500,000원

구해야 할 값:
- 기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충당부채 총액

주의할 조건:
- 충당부채는 현재의무가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장래 복구의무는 예상현금유출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충당부채 총액 = 각 현재의무에 대해 인식하는 충당부채의 합계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하나의 단일 공식 계산이 아니라 보기별로 충당부채 인식 여부와 측정금액을 확정한 뒤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보기 1은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의무이므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2,00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보기 2는 지급보증한 차입금 4,000,000원을 대신 갚아야 할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 부담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4,00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보기 3은 해상구조물 취득으로 복구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되 측정은 현재가치인 500,000원으로 한다.
4. 따라서 충당부채 총액은 2,000,000원 + 4,000,000원 + 500,000원 = 6,5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9,500,000원은 보기 3의 해상구조물 취득원가 3,000,000원까지 충당부채에 더한 값이다.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이지 충당부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충당부채 합계를 9,500,000원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6,500,000원이다.

② X
7,000,000원은 보기 3의 복구의무를 현재가치 500,000원이 아니라 미래지출액 1,000,000원으로 잘못 반영할 때 나오는 값이다. 장기 복구의무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틀린 표현은 복구충당부채를 1,000,000원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500,000원을 반영한 6,500,000원이다.

③ O
보기 1의 2,000,000원, 보기 2의 4,000,000원, 보기 3의 현재가치 500,000원을 합하면 6,500,000원이다. 현재의무가 있는 항목만 포함하고, 복구의무는 현재가치로 측정한 점이 핵심이다.

④ X
6,000,000원은 보기 3의 복구충당부채 500,000원을 누락할 때 나오는 값이다. 환경복구의무는 자산 취득과 동시에 현재의무가 생기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복구충당부채를 제외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500,000원을 포함한 6,500,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 3에서 1,000,000원과 500,000원을 함께 제시해 미래현금유출액과 현재가치를 혼동하게 만든 점이 대표적 함정이다. 또한 해상구조물의 취득원가 3,000,000원을 충당부채에 잘못 더하면 9,500,000원이 되어 자산과 부채를 섞는 오류가 발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충당부채 문제는 각 보기마다 현재의무 존재 여부를 먼저 본 뒤, 인식하는 항목만 골라 측정기준까지 확인하여 합산하면 된다. 장기 복구의무가 나오면 미래지출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를 쓰는지부터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보증·지급보증·복구의무는 현재의무이면 충당부채가 되고, 복구의무 금액은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NoteBase

문 15. (주)대한은 각 작업에 대해서 활동기준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계산한 제품 A의 총원가는?

<보기>

활동	원가	원가동인	최대활동량
생산준비	₩30,000	생산준비시간	1,000시간
재료처리	₩30,000	재료처리횟수	3,000회
기계사용	₩500,000	기계작업시간	20,000시간

제품	기초원가	생산수량	생산준비	재료처리	기계작업
A	₩300,000	12,000단위	50시간	100회	2,000시간

① ₩352,500

② ₩362,500

③ ₩372,500

④ ₩382,5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 뒤 제품 A에 소비된 활동량만큼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여 총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생산준비 원가 30,000원, 최대활동량 1,000시간
- 재료처리 원가 30,000원, 최대활동량 3,000회
- 기계사용 원가 500,000원, 최대활동량 20,000시간
- 제품 A 기초원가 300,000원
- 제품 A 활동소비량: 생산준비 50시간, 재료처리 100회, 기계작업 2,000시간

구해야 할 값:
-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따른 제품 A의 총원가

주의할 조건:
- 생산수량 12,000단위는 총원가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 각 활동원가는 해당 활동의 실제 소비량만큼만 배부한다.

사용할 공식

활동별 배부율은 활동원가 ÷ 최대활동량이다.
제품 A에 배부할 활동원가는 활동별 배부율 × 제품 A의 활동소비량이다.
총원가는 기초원가 + 배부된 활동원가 합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이 단일 배부기준이 아니라 활동별 원가동인에 따라 각각 배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다.
생산준비 배부율 = 30,000원 ÷ 1,000시간 = 30원
재료처리 배부율 = 30,000원 ÷ 3,000회 = 10원
기계사용 배부율 = 500,000원 ÷ 20,000시간 = 25원
2. 제품 A에 배부할 활동원가를 구한다.
생산준비 원가 = 30원 × 50시간 = 1,500원
재료처리 원가 = 10원 × 100회 = 1,000원
기계사용 원가 = 25원 × 2,000시간 = 50,000원
3. 배부된 활동원가를 합산한다.
1,500원 + 1,000원 + 50,000원 = 52,500원
4. 기초원가를 더해 총원가를 구한다.
300,000원 + 52,500원 = 352,500원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총원가는 352,500원이다.
- 활동별로 배부율을 구해 실제 소비량을 곱하면 배부원가가 52,500원이고, 여기에 기초원가 300,000원을 더하면 352,500원이 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총원가가 362,500원이라는 부분이다.
- 올바르게는 총원가는 352,500원이다.
- 활동원가 배부액을 62,500원으로 잘못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인데, 표의 활동소비량 50시간, 100회, 2,000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총원가가 372,500원이라는 부분이다.
- 올바르게는 총원가는 352,500원이다.
- 활동별 배부율을 합산한 뒤 다시 활동량을 중복 반영하거나 특정 활동원가를 과대배부하면 이런 오답이 나온다.

④ X
- 틀린 표현은 총원가가 382,500원이라는 부분이다.
- 올바르게는 총원가는 352,500원이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품 A가 실제로 사용한 활동량만 배부하므로 총원가를 382,500원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포인트

생산수량 12,000단위를 보고 단위당 계산으로 들어가거나, 활동별 배부율을 구하지 않고 원가를 직접 더하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활동원가를 활동별 원가동인으로 나누어 배부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동기준원가계산 문항은 먼저 활동별 원가와 원가동인을 짝지은 뒤 배부율을 구하고, 그다음 제품이 실제 소비한 활동량을 곱해 배부원가를 계산한다. 마지막에 기초원가를 더해 총원가인지 단위원가인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별 배부율을 먼저 구하고, 총원가는 기초원가에 배부된 활동원가를 더해 완성된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주)서울의 20X1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주)서울은 수년 전부터 과세소득을 실현하고 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X1년도에 ₩500,000이고, 20X2년 이후에는 매년 ₩550,000씩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 (주)서울의 법인세율은 20X1년 25%, 20X2년 28%이며, 20X3년부터 그 이후는 계속 30%가 적용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20X1년 (주)서울의 장부상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없었다면, 20X1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법인세비용은? (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조건은 충족된다.)

<보기>

• 세무회계상 손금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70,000이다.

• 취득원가 ₩4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인 기계장치를 20X1년 초에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정액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157,500

② ₩139,900

③ ₩139,500

④ ₩12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구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구분한 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함께 반영하여 20X1년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원이다.
세무회계상 손금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70,000원은 영구적 차이이다.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400,000원,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원이다.
회계상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 세무상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다.
세율은 20X1년 25%, 20X2년 28%, 20X3년 이후 30%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접대비 초과액은 이연법인세 대상이 아니고, 감가상각방법 차이만 이연법인세 대상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법인세비용은 다음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 = 과세소득 × 당기세율
이연법인세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 환입 시 적용세율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접대비 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당기 과세소득만 증가시키고, 감가상각방법 차이는 미래 기간에 세무상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X1년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연수합계법이므로 400,000 × 4/10 = 160,000원이다.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므로 400,000 ÷ 4 = 100,000원이다.
2.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무상보다 60,000원 더 크므로 20X1년 과세소득은 그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500,000 + 70,000 + 60,000 = 630,000원이다.
3. 당기법인세비용은 630,000 × 25% = 157,500원이다.
4. 20X1년 말 장부가액은 240,000원, 세무기준액은 300,000원이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60,000원이다. 이 60,000원은 20X2년에 환입되지 않는다. 20X2년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 120,000원이 세무상 100,000원보다 여전히 커서 일시적차이가 80,000원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존재한 60,000원은 20X3년 이후에 환입되고, 적용세율은 30%이다.
5. 이연법인세자산은 60,000 × 30% = 18,000원이다. 기초 이연법인세자산이 없으므로 20X1년 이연법인세비용은 -18,000원이다.
6. 최종 법인세비용은 157,500 - 18,000 = 139,5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157,500원은 과세소득 630,000원에 20X1년 세율 25%를 곱한 당기법인세비용만 반영한 값이다. 감가상각방법 차이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 18,000원을 빼지 않았다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법인세비용이 157,500원이 아니라 139,500원이다.
2번 X: 139,900원은 20X1년 말 차감할 일시적차이 60,000원 중 일부가 20X2년에 환입된다고 보고 28%와 30%를 섞어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그러나 20X2년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 120,000원이 세무상 100,000원보다 커서 일시적차이가 80,000원으로 증가하므로 20X1년 말의 60,000원은 20X2년에 환입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전액 30%를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이 139,500원이다.
3번 O: 당기법인세비용 157,500원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18,000원을 차감하면 법인세비용은 139,500원이다. 영구적 차이 70,000원은 당기 과세소득에만 반영하고, 감가상각방법 차이 60,000원만 이연법인세 대상으로 처리한 계산이 맞다.
4번 X: 125,000원은 회계이익 500,000원에 25%를 바로 곱한 값이다. 이는 접대비 초과액 70,000원과 감가상각 차이 60,000원을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오류이다. 올바르게는 과세소득을 먼저 630,000원으로 고친 뒤 이연법인세까지 반영하여 139,500원을 구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접대비 초과액 70,000원을 일시적차이로 착각하면 이연법인세를 잘못 잡는다. 둘째, 20X1년 말 차감할 일시적차이 60,000원의 환입 시점을 20X2년으로 오판하면 28%와 30%를 섞어 적용하게 된다. 20X2년에는 일시적차이가 줄지 않고 오히려 80,000원으로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계산형 문제는 회계이익에서 출발해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차이를 먼저 분리한다. 그다음 당기 과세소득으로 당기법인세를 구하고, 기말 장부가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해 일시적차이를 구한 뒤 실제 환입 연도의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영구적 차이는 당기세금만 바꾸고, 일시적차이는 환입세율로 이연법인세를 만든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주)한국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 중 일부이다. 당기 중 취득원가가 ₩50,000, 감가상각누계액이 ₩20,000인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이 발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한국의 당기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투자활동현금흐름(순액)은?

<보기>

계정과목	기초	기말
기계장치	₩200,000	₩25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	(80,000)

① 순유입 ₩55,000

② 순유입 ₩75,000

③ 순유출 ₩55,000

④ 순유출 ₩75,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 처분대금과 당기 취득액을 기계장치 계정 변동으로 역산하여 투자활동 현금흐름 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 기계장치 200,000원
- 기말 기계장치 250,000원
- 처분 자산 취득원가 50,000원
- 처분 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0,000원
-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원

구해야 할 값:
- 기계장치와 관련된 투자활동 현금흐름 순액

주의할 조건:
- 처분손실 5,000원은 처분대금이 장부가액보다 5,000원 적다는 뜻이다.
- 기계장치 계정 잔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원가 기준 총액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사용할 공식

처분 자산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처분대금 = 장부가액 - 처분손실
당기 취득액 = 기말 기계장치 - 기초 기계장치 + 처분 자산 취득원가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 처분대금 - 당기 취득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기계장치 계정의 기초·기말 잔액은 총원가 계정의 증감이므로, 처분된 자산의 취득원가를 되돌려 더해야 당기 취득액이 계산된다. 처분손실은 장부가액과 처분대금의 차이를 알려 주는 정보이다.

계산 과정

1. 처분 자산의 장부가액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2. 유형자산처분손실이 5,000원이므로 처분대금은 30,000 - 5,000 = 25,000원이다.
3. 기계장치 총원가 계정은 250,000 = 200,000 + 당기 취득액 - 50,000이므로 당기 취득액은 100,000원이다.
4. 투자활동 현금흐름 순액은 25,000 - 100,000 = -75,000원이다.
따라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순유출 75,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계산 결과 순현금흐름은 -75,000원이므로 "순유입 55,000"은 부호와 금액이 모두 틀리다.
- 틀린 표현은 "순유입 55,000"이고, 올바르게는 "순유출 75,000"이다.
② X
- 계산 결과 금액은 75,000원이 맞지만 현금의 방향이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다. 취득액 100,000원이 처분대금 25,000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 틀린 표현은 "순유입 75,000"이고, 올바르게는 "순유출 75,000"이다.
③ X
- 현금의 방향은 순유출이 맞지만 금액이 55,000원이 아니다. 처분대금 25,000원과 취득액 100,000원을 반영하면 차액은 75,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순유출 55,000"이고, 올바르게는 "순유출 75,000"이다.
④ O
- 처분대금 25,000원 유입과 기계장치 취득액 100,000원 유출을 합치면 순현금흐름은 -75,000원이다.
- 따라서 "순유출 75,000"은 옳다.

오답 포인트

기계장치 계정의 기초·기말 차이 50,000원만 보고 당기 취득액을 50,000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계정은 총원가 계정이므로 처분된 자산의 취득원가 50,000원을 되돌려 더해야 한다. 또한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원은 투자활동 현금유출 항목이 아니라 처분대금을 역산하는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투자활동 현금흐름 문제는 먼저 처분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처분대금을 구하고, 다음으로 총원가 계정의 증감으로 당기 취득액을 구한 뒤, 마지막에 처분대금에서 취득액을 차감해 순유입·순유출의 방향까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형자산 계정 증감표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보고, 처분손실은 현금흐름 금액 자체가 아니라 처분대금 역산 정보로 사용한다.

NoteBase

문 18.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방법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할 경우, 변동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② 회사가 영업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으며, 장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투자부동산의 구입금액과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와 후속측정에서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영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단기 매매할 목적이 아니라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해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은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이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므로 감가상각비를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② O: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단기 판매 목적도 아니며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③ O: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공정가치 변동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O: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금액과 취득에 직접 관련된 지출을 포함한다. 따라서 취득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나 세금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의 특징을 뒤섞으면 ①에 흔들리기 쉽다. '감가상각'은 원가모형의 키워드이고, '공정가치 변동의 당기손익 인식'은 공정가치모형의 키워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부동산 문제에서는 먼저 보유목적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인지 확인하고, 후속측정 문구가 나오면 감가상각을 하는 모형인지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으로 처리하는 모형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은 보유목적, 원가모형은 감가상각, 공정가치모형은 손익반영이다.

NoteBase

문 19.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③ 상각은 무형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④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해 상각기간 검토, 상각방법, 상각중지 시점, 제조원가 반영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상각하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를 반영해야 하고,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제조과정에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즉시 기간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원가로 배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예상 내용연수가 달라지면 상각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

② O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③ O
무형자산의 상각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상각중지 시점을 묻는 기본 규정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재고자산 등의 원가로 인식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상각액이 발생하면 모두 곧바로 비용이라는 인식을 노린 선지이다. 그러나 자산이 제조활동에 사용되면 그 상각액은 기능별로 배분되어 먼저 원가가 되고, 판매되거나 소비될 때 손익에 반영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형자산 상각 문제는 먼저 내용연수 유한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각기간 재검토, 상각방법 결정 기준, 상각중지 시점, 상각액의 귀속처를 차례로 본다. 특히 제조에 사용된 자산이면 즉시 기간비용인지 원가배분 대상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한내용연수 무형자산은 매년 재검토하고, 소비형태 불명확 시 정액법을 쓰며, 제조용 상각액은 먼저 원가로 간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된 수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계산한 재정운영순원가는?

<보기>
• 프로그램총원가 ₩250,000
• 프로그램수익 ₩80,000
• 관리운영비 ₩50,000
• 비배분수익 ₩40,000
• 비배분비용 ₩30,000
• 비교환수익 ₩150,000

① ₩110,000
② ₩160,000
③ ₩170,000
④ ₩21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운영표에서 재정운영순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비용과 차감되는 수익의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프로그램총원가: 250,000원
- 관리운영비: 50,000원
- 비배분비용: 30,000원
- 프로그램수익: 80,000원
- 비배분수익: 40,000원
- 비교환수익: 150,000원

구해야 할 값
- 재정운영순원가

주의할 조건
-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결과 계산 단계의 항목이며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9 · 10월

사용할 공식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프로그램수익 - 비배분수익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재정운영순원가가 비용 총액에서 교환거래로 회수되는 수익만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비용 합계는 250,000 + 50,000 + 30,000 = 330,000원이다.
2.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차감할 수익 합계는 80,000 + 40,000 = 120,000원이다.
3.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는 330,000 - 120,000 = 210,000원이다.
4. 비교환수익 150,000원은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할 때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여기서는 빼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110,000원은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다. 올바른 계산값은 210,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금액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10,000원이다.'가 된다.

② X
- 160,000원은 비용과 수익의 포함 범위를 혼동한 오답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지 않고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만 차감한다.
- 틀린 표현은 금액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10,000원이다.'가 된다.

③ X
- 170,000원은 관리운영비 또는 비배분비용을 누락하거나 수익 차감 범위를 잘못 잡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외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도 포함한다.
- 틀린 표현은 금액 자체이다. 올바르게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10,000원이다.'가 된다.

④ O
- 250,000 + 50,000 + 30,000 - 80,000 - 40,000 = 210,000원이므로 옳다.
- 비교환수익을 제외하고 계산한 점까지 재정운영순원가의 정의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혼동하면 비교환수익까지 빼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수익이 세 종류처럼 보이지만 재정운영순원가에서는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만 차감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관서나 기금의 재정운영표 계산 문제는 먼저 비용 항목인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모두 더한 뒤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만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비교환수익이 보이면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재정운영결과 단계의 항목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원가는 비용 3개를 더하고 수익 2개를 뺀 값이며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외된다.

NoteBase